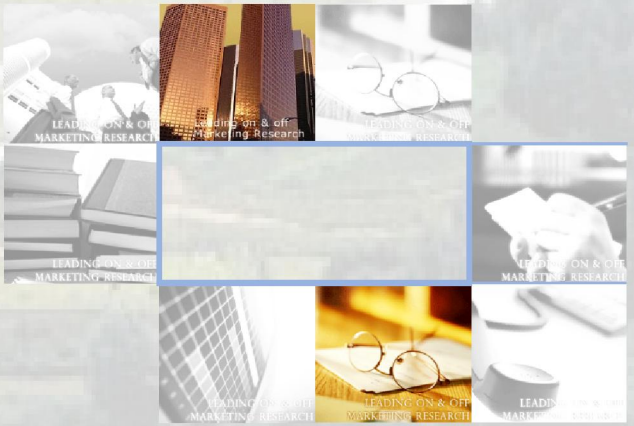
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

貴中

CONFIDENTIAL

설, 추석연휴, 하계휴가 주요문항 시계열 분석

2012. 5. 2



KOTI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

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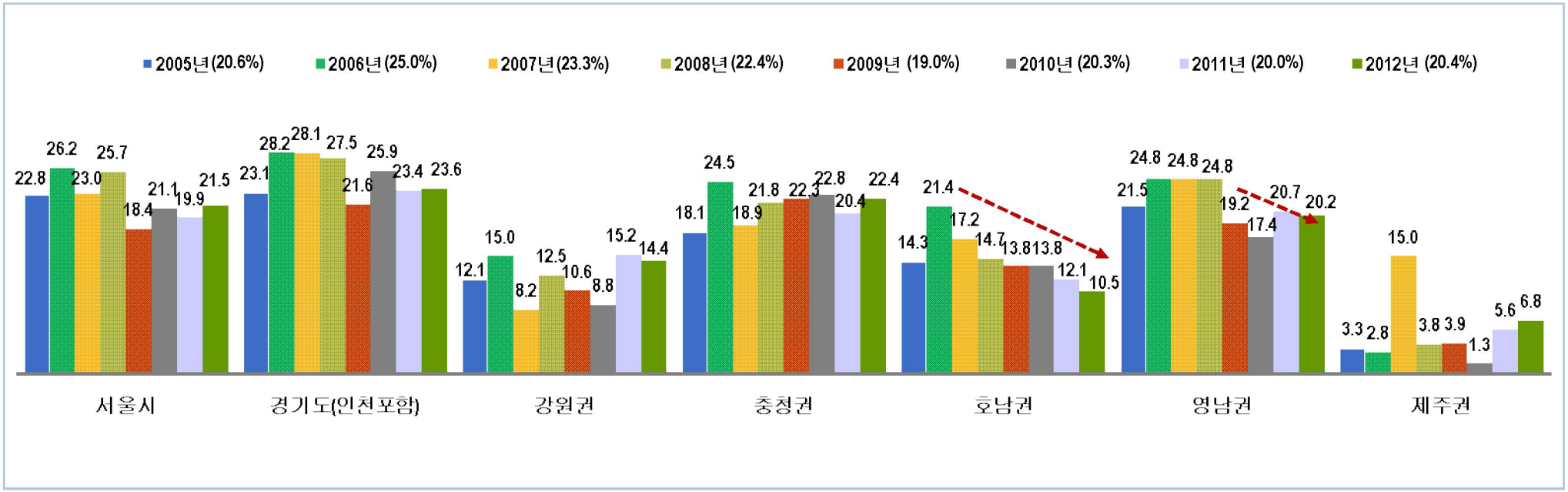
1. 설 연휴 주요문항 분석결과

2. 하계 휴가 주요문항 분석결과

3. 추석 연휴 주요문항 분석결과

1) 귀성 및 여행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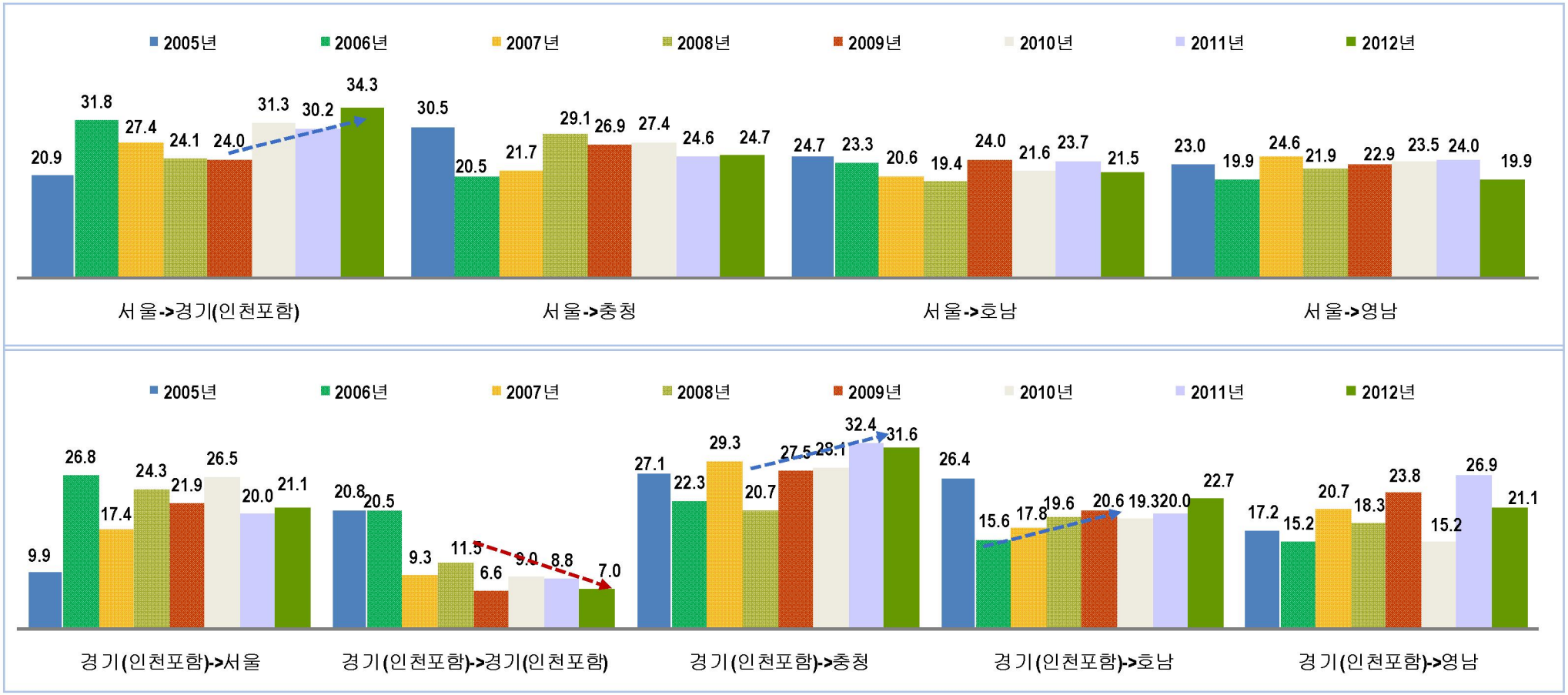
- 2005년부터 2012년 설 연휴 귀성 및 여행비율은 2006년이 25.0%로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높으며, 2006년 이후부터 귀성 및 여행비율이 감소하고 있음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호남권 응답자들은 2006년 이후부터, 영남권 응답자들은 2008년 이후부터 귀성 및 여행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2) 귀성 및 여행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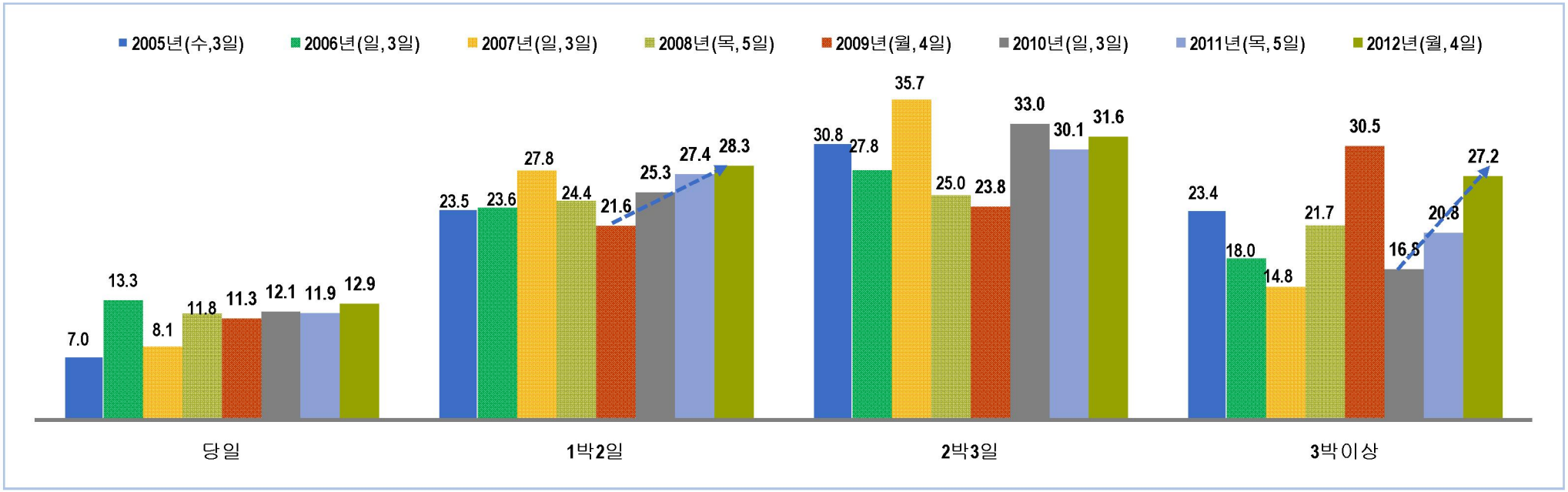
- 귀성 및 여행하는 지역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, 서울에서 경기(인천포함)로 이동하는 응답자는 2009년부터, 경기(인천포함)에서 충청으로 이동하는 응답자는 2008년부터, 경기(인천포함)에서 호남으로 이동하는 응답자는 2006년부터 이동률이 다소 증가함
- 반면, 경기(인천포함)에서 경기(인천포함) 지역으로 이동하는 응답률은 2008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3) 귀성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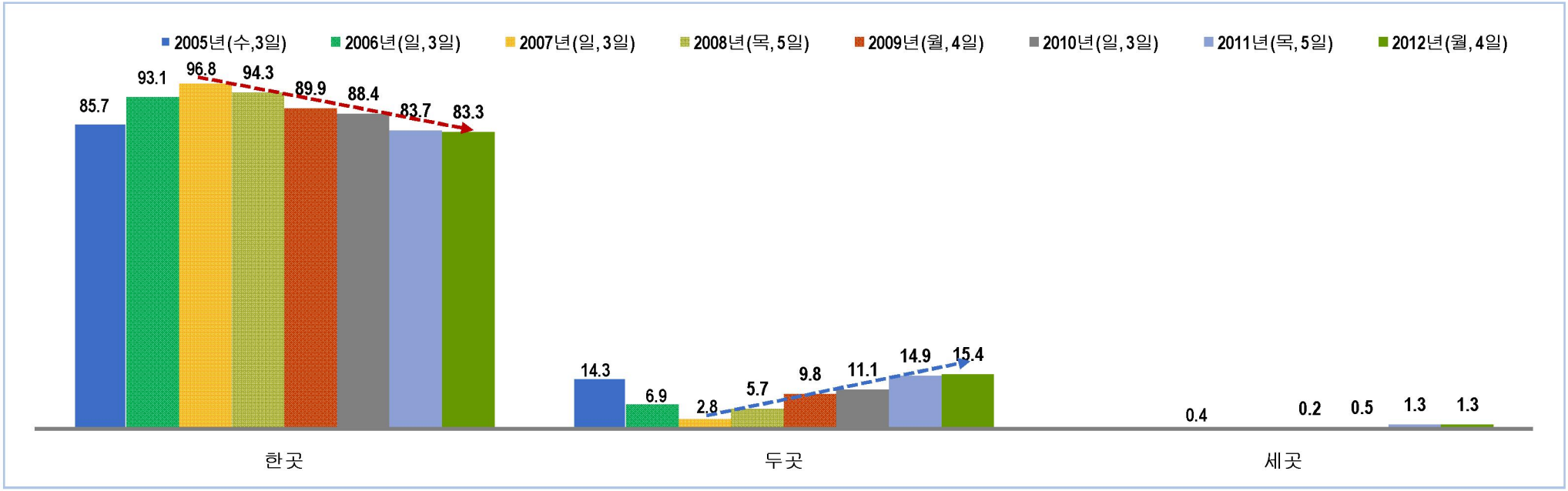
-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와 귀경 또는 여행 후 귀사시의 출발일자 차이를 통해 설 연휴 귀성기간을 도출함
- 귀성 기간은 대부분 '2박 3일', '1박 2일'이었으며, 2009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귀성기간이 다소 길었던 것으로 나타남
- 연휴 일수와 귀성기간을 비교,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연휴 일수에 상관없이 유사한 귀성기간을 보내는 것으로 응답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4) 귀성 및 여행 이동횟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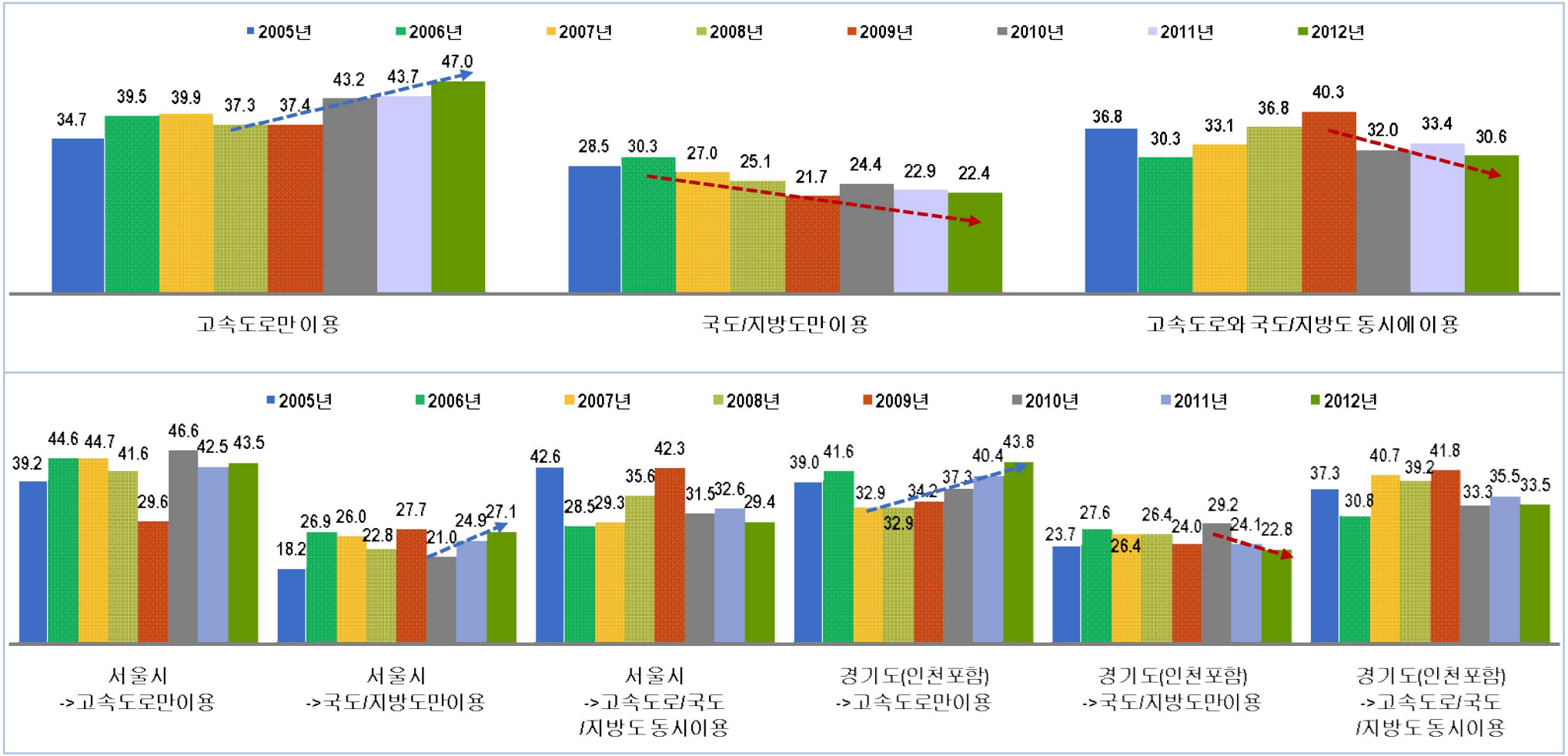
-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이동횟수를 산정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'한곳'으로 이동하였음
- 반면, 2007년 이후부터는 '두 곳', 2009년 이후부터는 '세 곳'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5) 고속도로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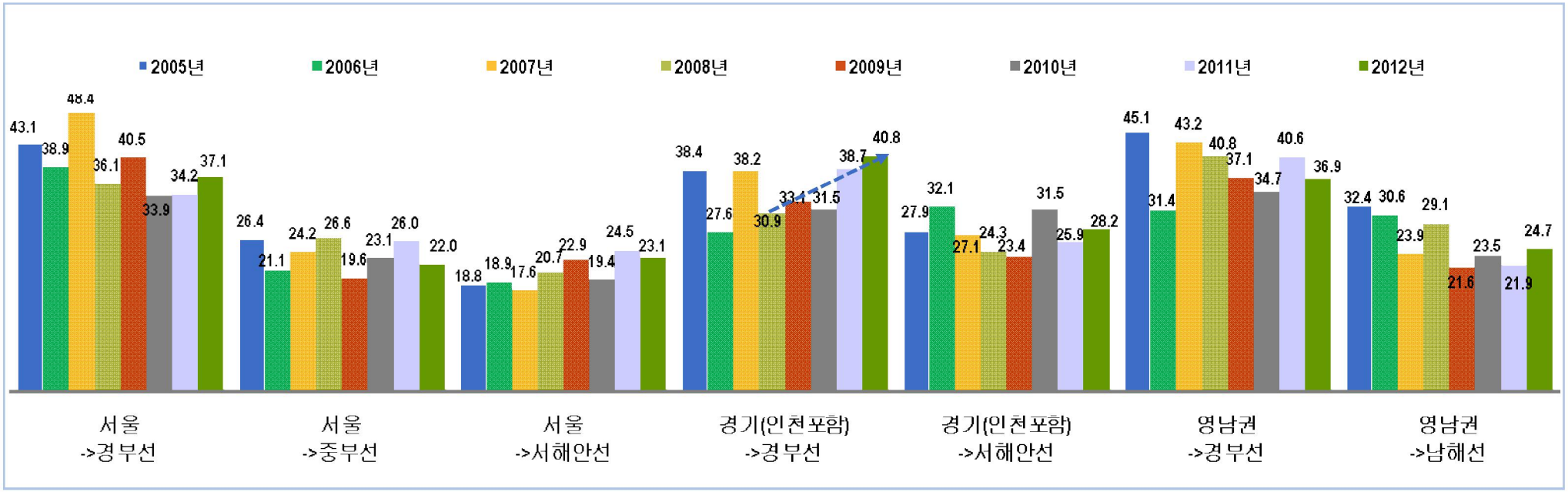
-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'고속도로만 이용'하고 있으며, '고속도로만 이용자'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, '국도/지방도만 이용', '고속도로와 국도/지방도 동시 이용'자는 소폭 감소하고 있음
- 특히, 경기도(인천포함) 거주자들은 2007년 이후부터 '고속도로만 이용'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6)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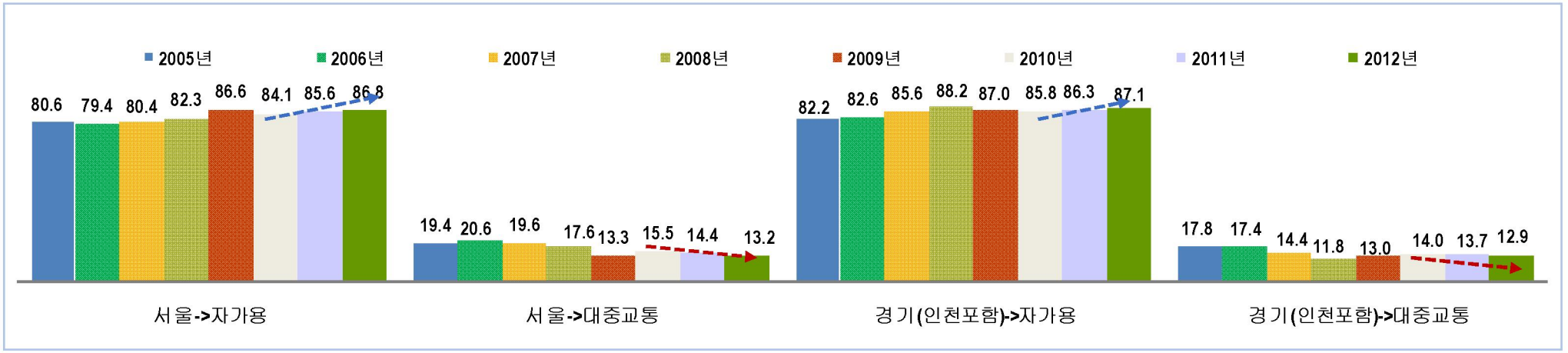
- 설 연휴기간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'경부선'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경기(인천포함) 지역 거주자들은 2008년 이후부터 '경부선'을 이용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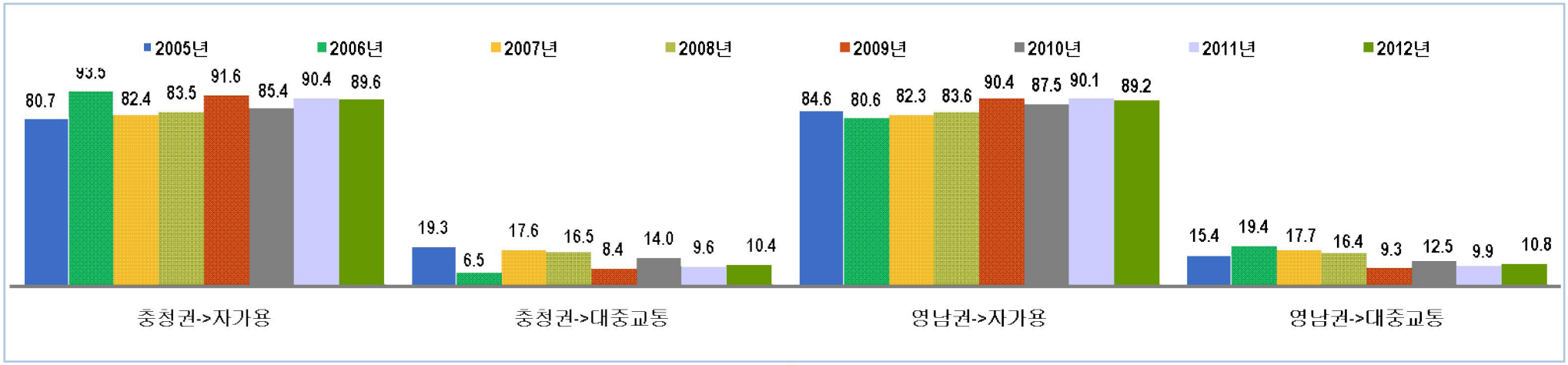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7) 주 이용 교통수단

-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'자가용'으로 '대중교통'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서울지역 및 경기(인천포함) 거주자들은 2010년 이후부터 '자가용' 이용률이 다소 증가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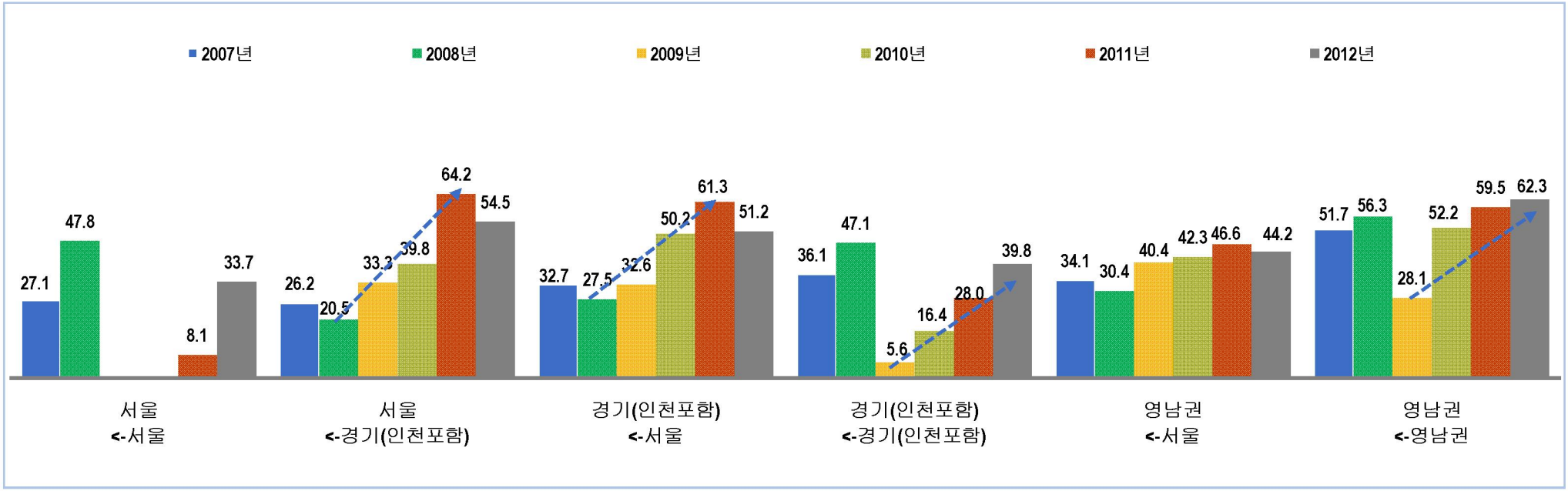
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8) 역귀성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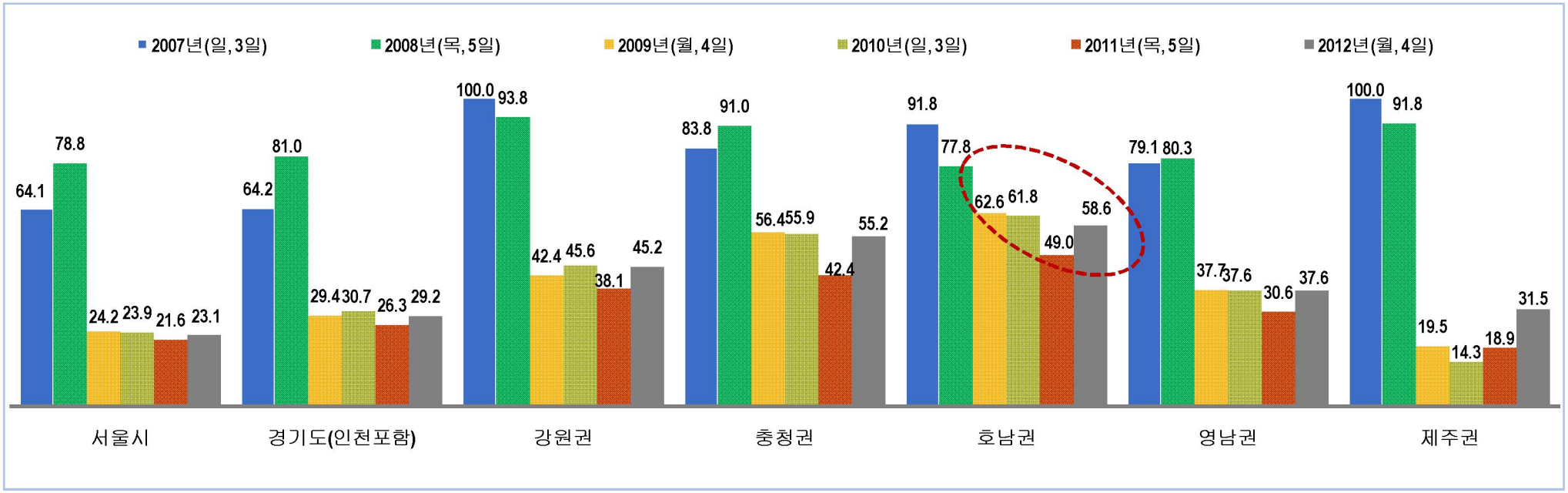
-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는 경우, 경기(인천포함)에서 서울, 서울에서 '경기(인천포함)로의 역귀성률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
- 경기(인천포함)에서 경기(인천포함), 영남권에서 영남권으로의 역귀성률은 2009년 이후부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9) 성묘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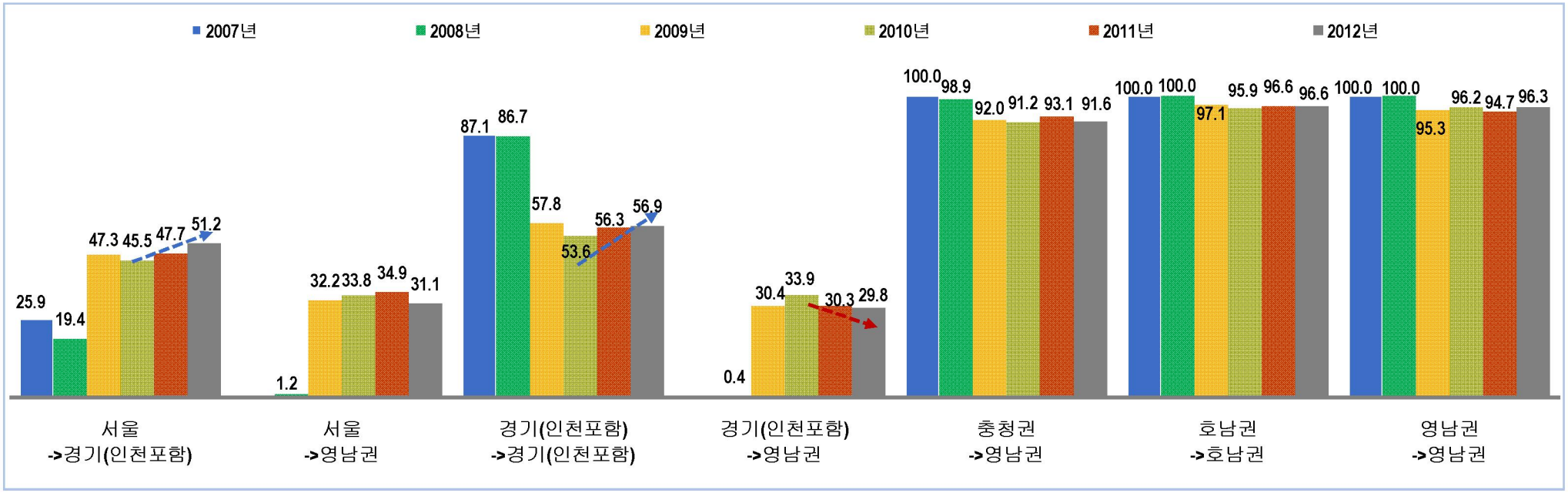
- 2008년 이후 설 연휴 기간에 성묘를 가는 응답률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음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2009년 이후부터 호남권 응답자들의 성묘 비율이 다른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10) 성묘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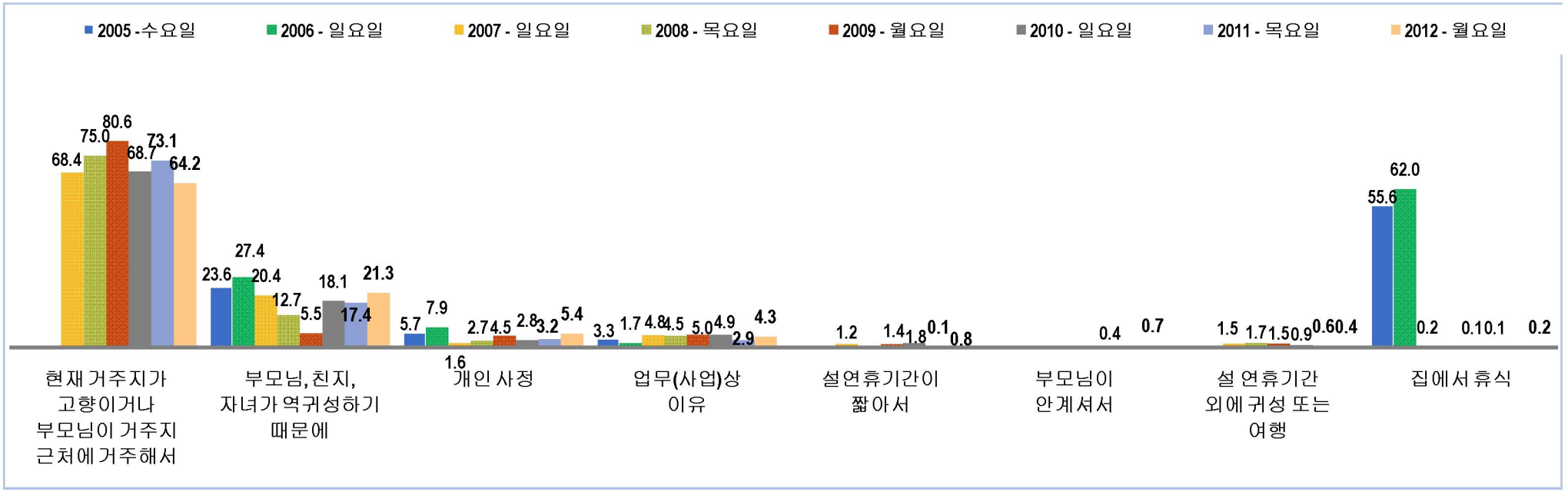
- 성묘지역으로의 이동은 주로 '호남권→호남권', '영남권→영남권', '충청권→영남권' 임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서울에서 경기(인천포함), 경기(인천포함)에서 경기(인천포함)으로 성묘를 위한 이동률은 2010년 이후 소폭 상승한 반면, 경기(인천포함)에서 영남권으로의 성묘를 위한 이동률은 2010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11) 귀성 또는 여행하지 않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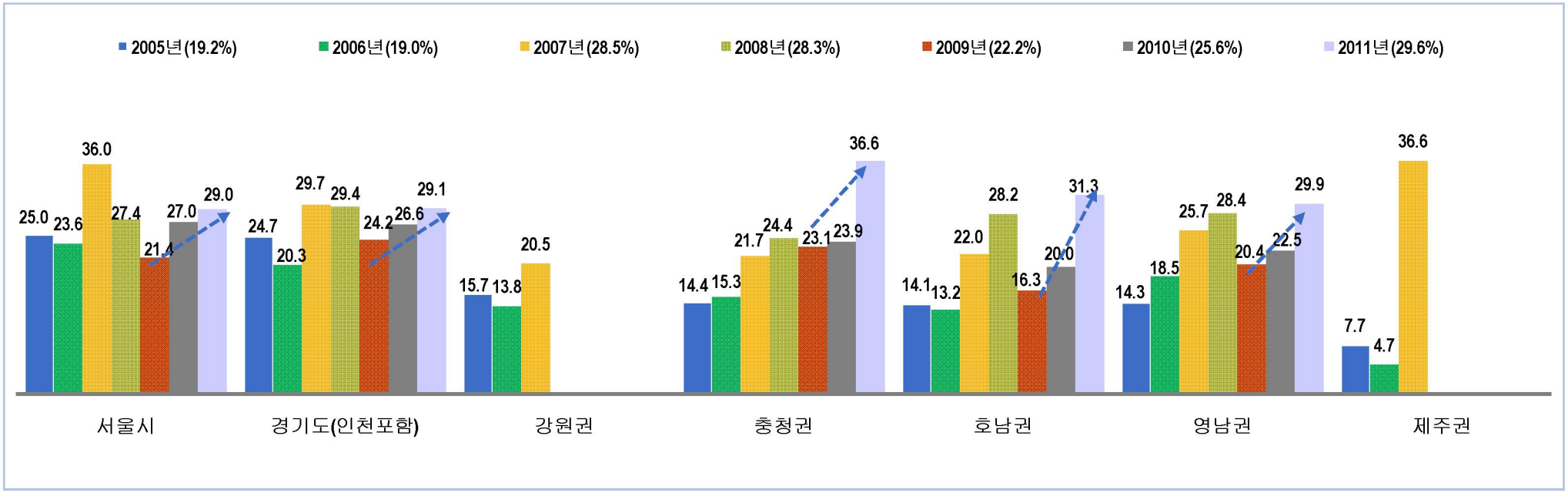
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'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'이며, 다음으로 '부모님, 친지,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'인 것으로 나타남



※ 데이터 중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주요 값만 표기함

1) 휴가기간 여행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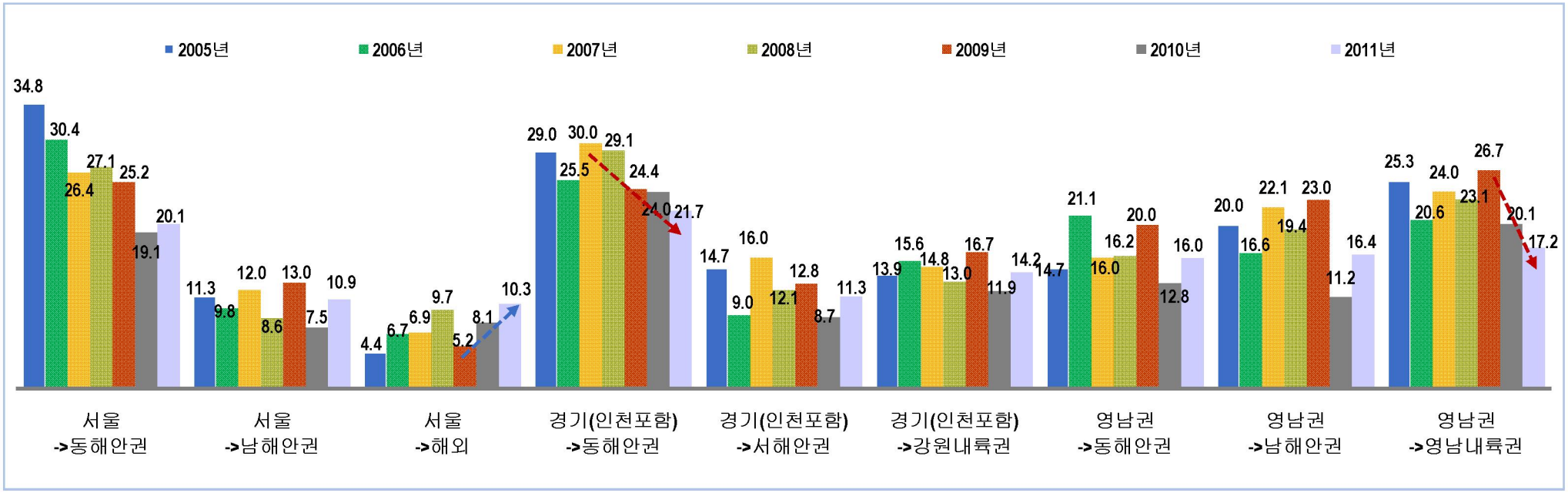
-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비율은 2011년 29.6%로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높으며, 여행 비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서울, 경기(인천포함), 충청권, 호남권, 영남권 응답자들의 여행 비율은 2009년 이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2) 휴가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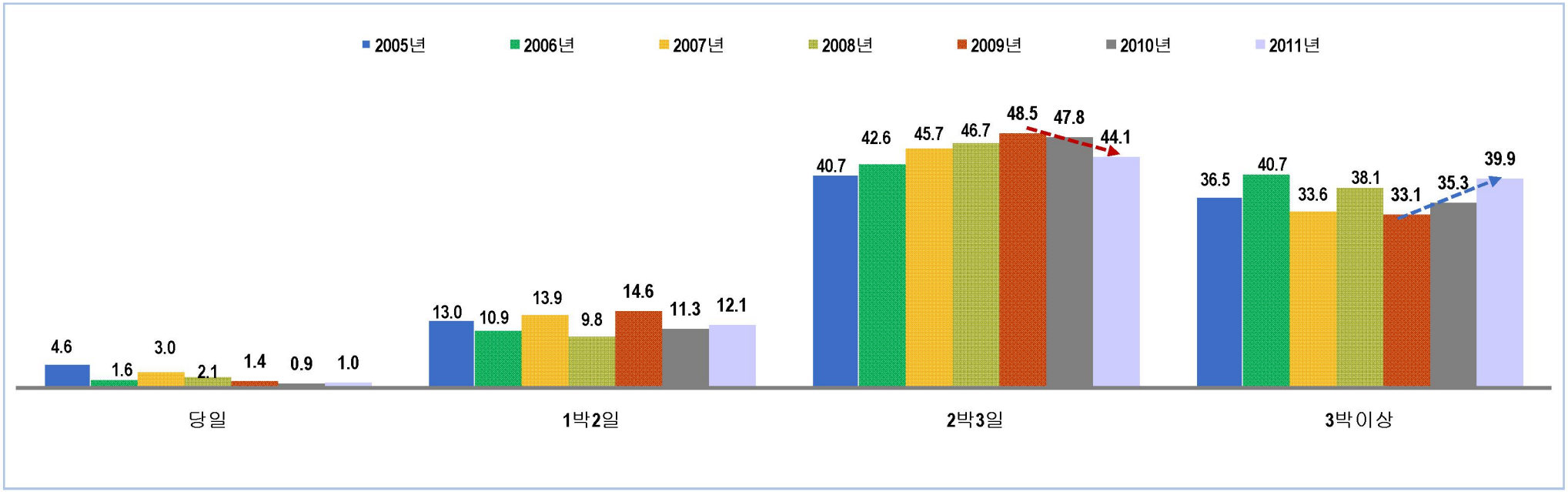
- 하계 휴가지역으로는 주로 '동해안권' 임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'서울→해외'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9년 이후 소폭 증가한 반면, '경기(인천포함)→동해안권'은 2007년 부터, '영남권→영남내륙권'으로의 이동비율은 2009년부터 감소하였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3) 휴가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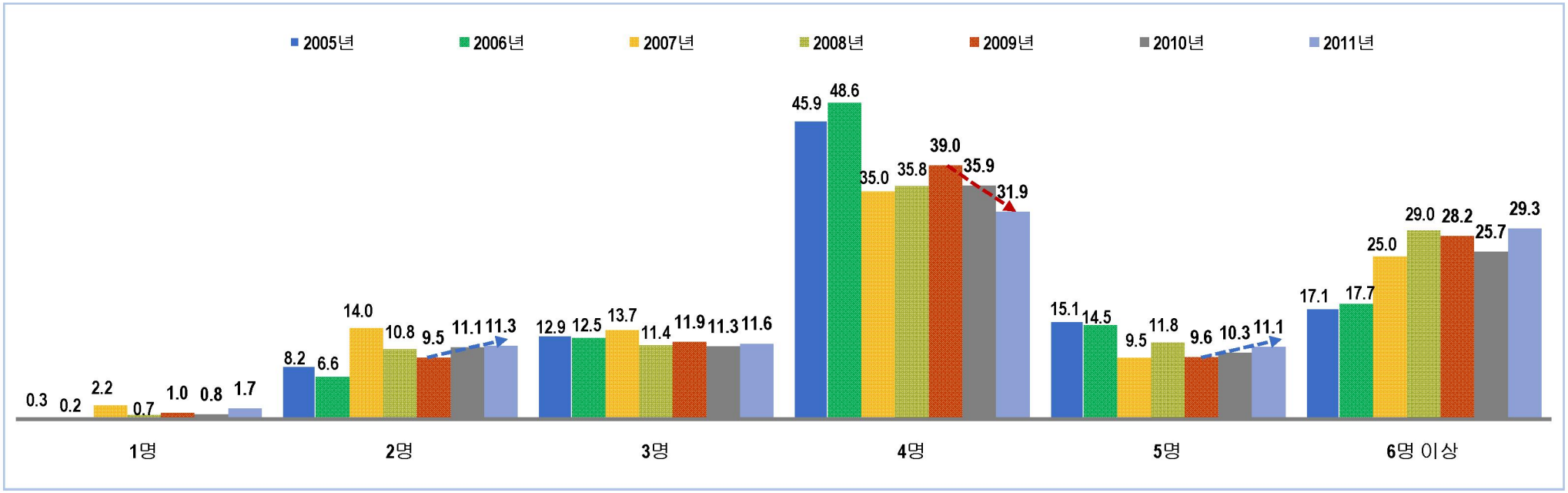
- 응답자들은 하계 휴가 기간으로 대부분 '2박3일'을 계획하였음
- 연도별로 살펴보면, 2009년 이후부터 휴가기간을 '3박 이상' 계획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4) 동행인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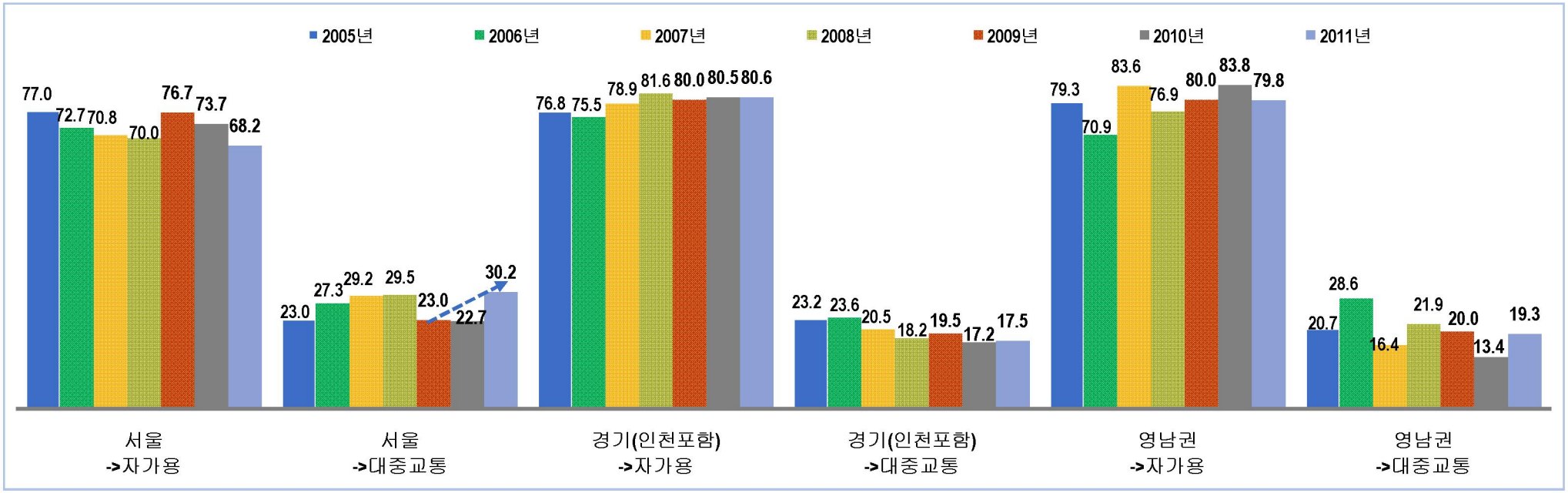
- 하계 휴가 여행시 동행하고자 하는 인원은 대부분 '4명'이었음
- 연도별로 살펴보면, 동행인이 '2명', '4명'인 응답자는 2009년 이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5) 주 이용 교통수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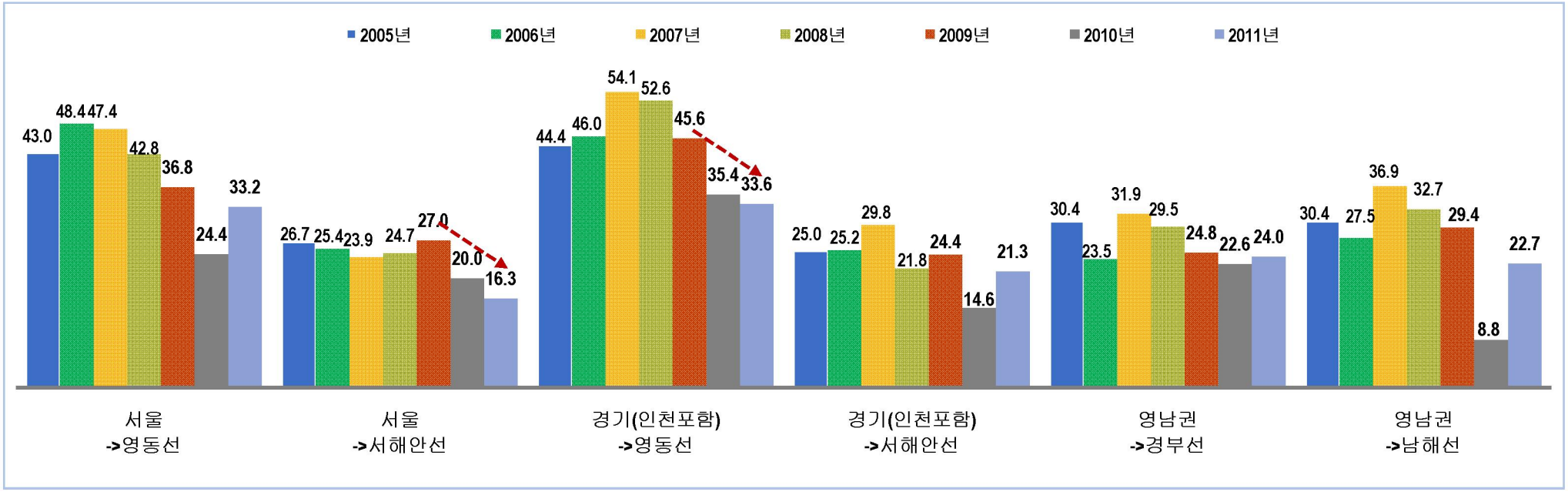
- 하계 휴가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은 '자가용' 임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'대중교통' 이용률이 2009년 이후부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6)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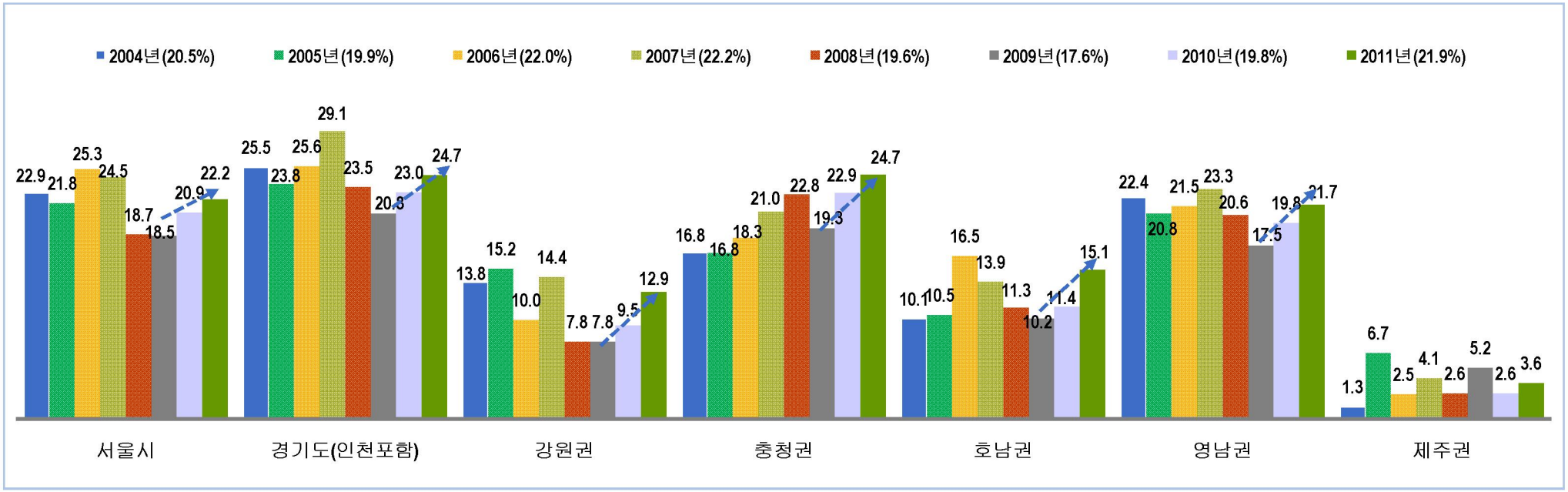
- 하계 휴가 여행시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 노선은 '영동선' 이었음
- '영남권→남해선'으로의 이동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가장 큰 폭(13.9% ↑)으로 증가하였으며, 다음으로 '서울→영동선'(8.8% ↑) , '경기(인천포함)→서해안선'(6.7%↑) 임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'서울→서해안선', '경기(인천포함)→영동선'으로의 이동은 2009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1) 귀성 및 여행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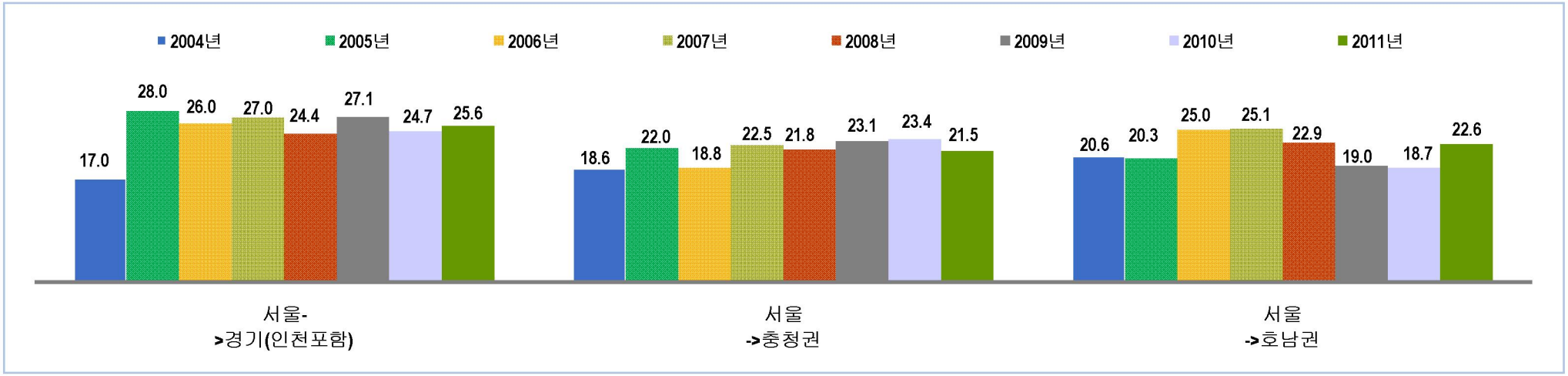
- 2004년부터 2011년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비율은 2007년이 22.2%로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높으며, 2009년 이후부터 귀성 및 여행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음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'제주권'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은 2009년 이후부터 귀성 및 여행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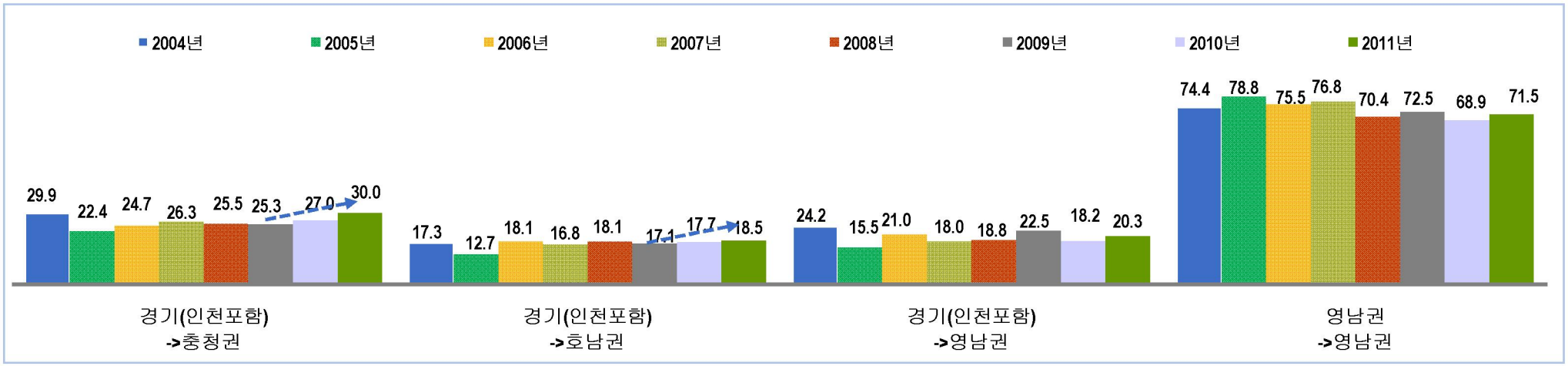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2) 귀성 및 여행지역

-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지역은 주로 '영남권'이었음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'경기(인천포함)→충청권', '경기(인천포함)→호남권'으로의 이동비율이 2009년 이후부터 소폭 상승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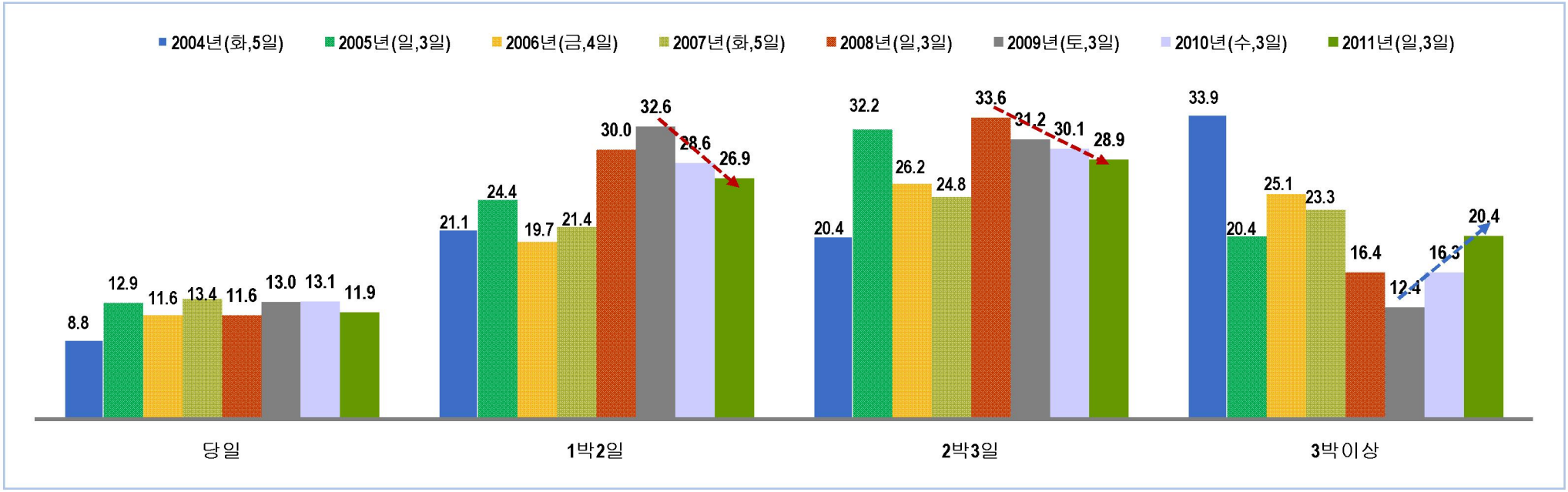
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3) 귀성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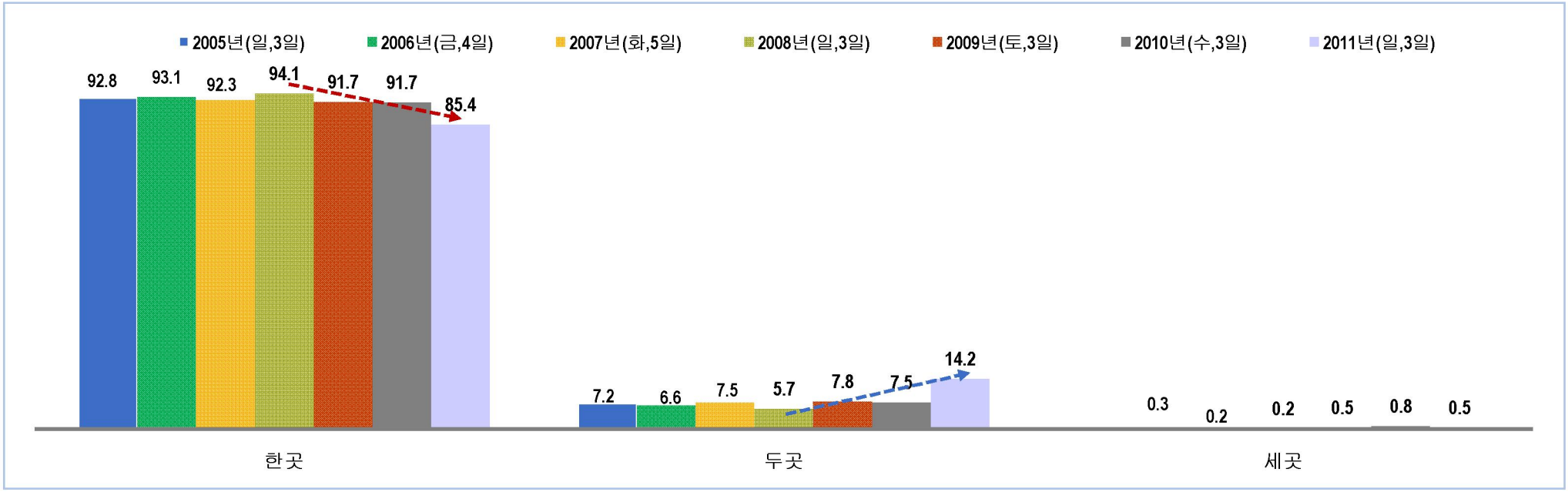
-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와 귀경 또는 여행 후 귀사시의 출발일자 차이를 통해 추석 연휴 귀성기간을 도출한 결과, 귀성 기간은 대부분 '2박 3일', '1박 2일'이었으며, 2004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귀성기간이 다소 길었던 것으로 나타남
- 귀성기간이 '1박 2일'은 2009년부터, '2박 3일'은 2008년부터 감소한 반면, '3박 이상'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- 연휴 일수와 귀성기간을 비교,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연휴 일수에 상관없이 유사한 귀성기간을 보내는 것으로 응답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4) 귀성 및 여행시 이동횟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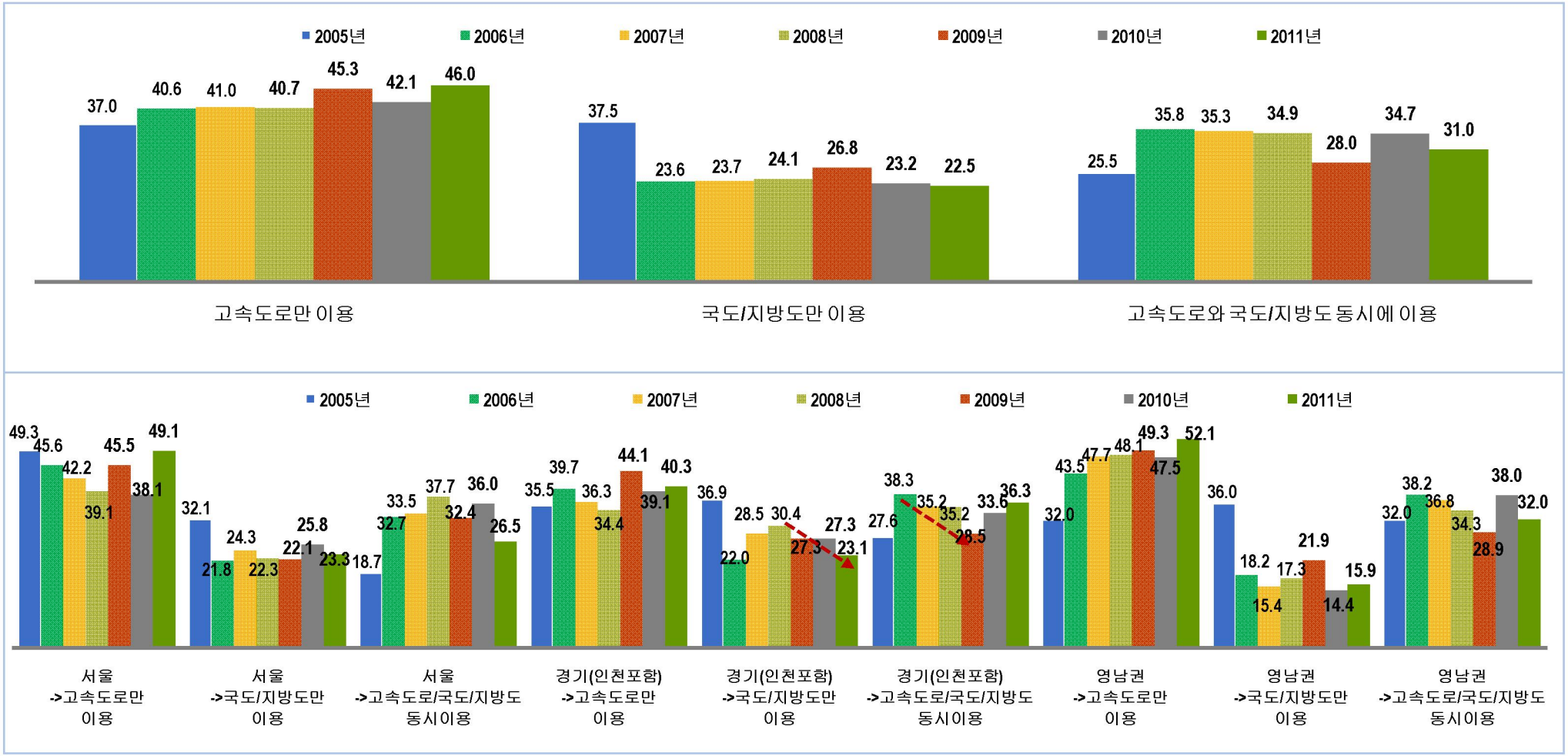
-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이동횟수를 산정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'한곳'으로 이동한 반면, 2008년 이후부터는 '두 곳'으로 이동하는 응답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
- 특히, 2010년 대비 2011년 '두 곳'으로의 이동률은 큰 폭(6.7%↑)으로 상승하였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5) 고속도로 이용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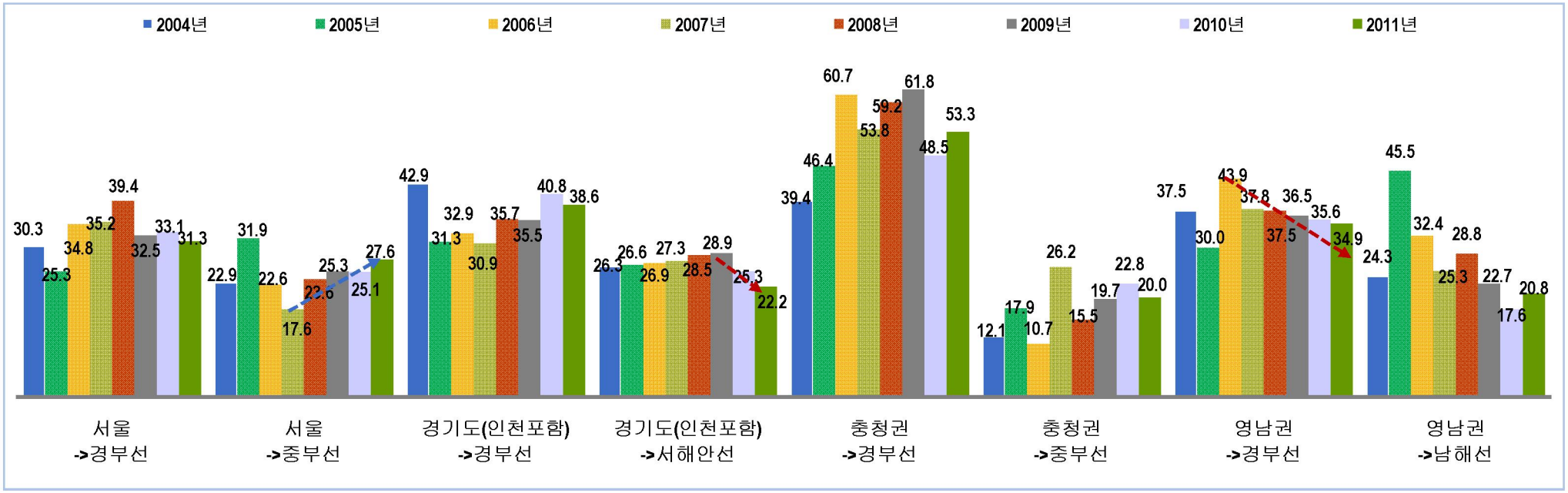
-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'고속도로만 이용'하고 있음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경기도(인천포함) 거주자들의 '국도/지방도만 이용' 비율은 2008년 이후부터, '고속도로/국도/지방도 동시 이용' 비율은 2006년 이후부터 감소하였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6)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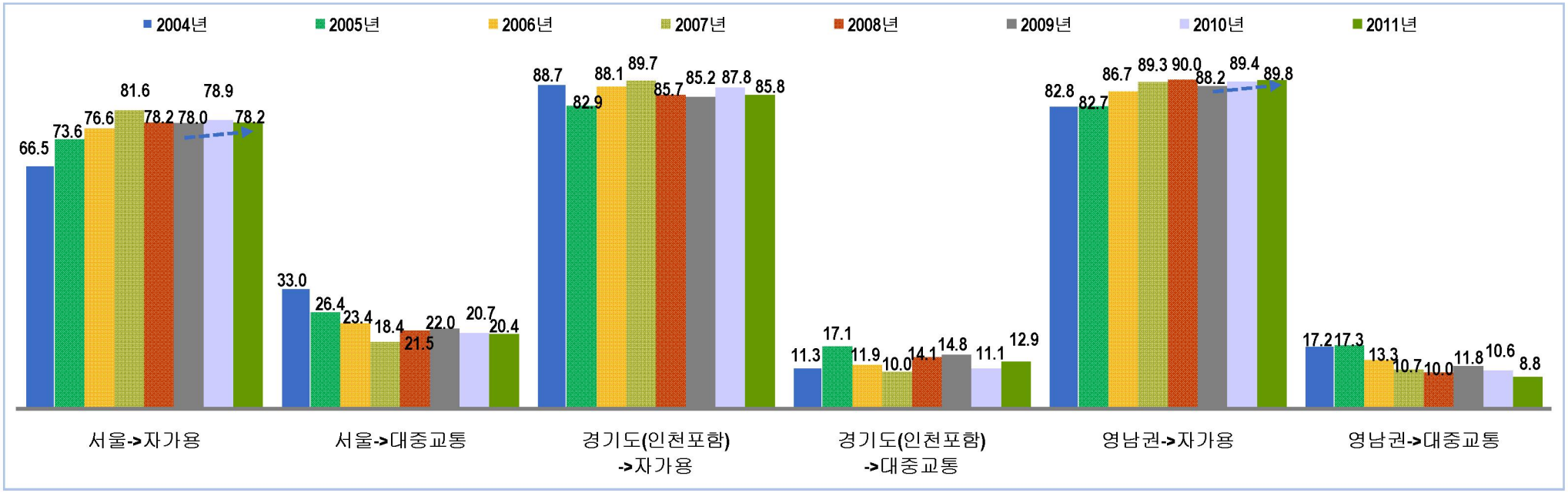
- 추석 연휴기간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'경부선'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서울 지역 거주자들은 2007년 이후부터 '경부선'을 이용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, 경기도(인천포함) 지역 거주자들은 2009년 이후부터 '서해안선'을, 영남권 거주자들은 2006년부터 '경부선'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7) 주 이용 교통수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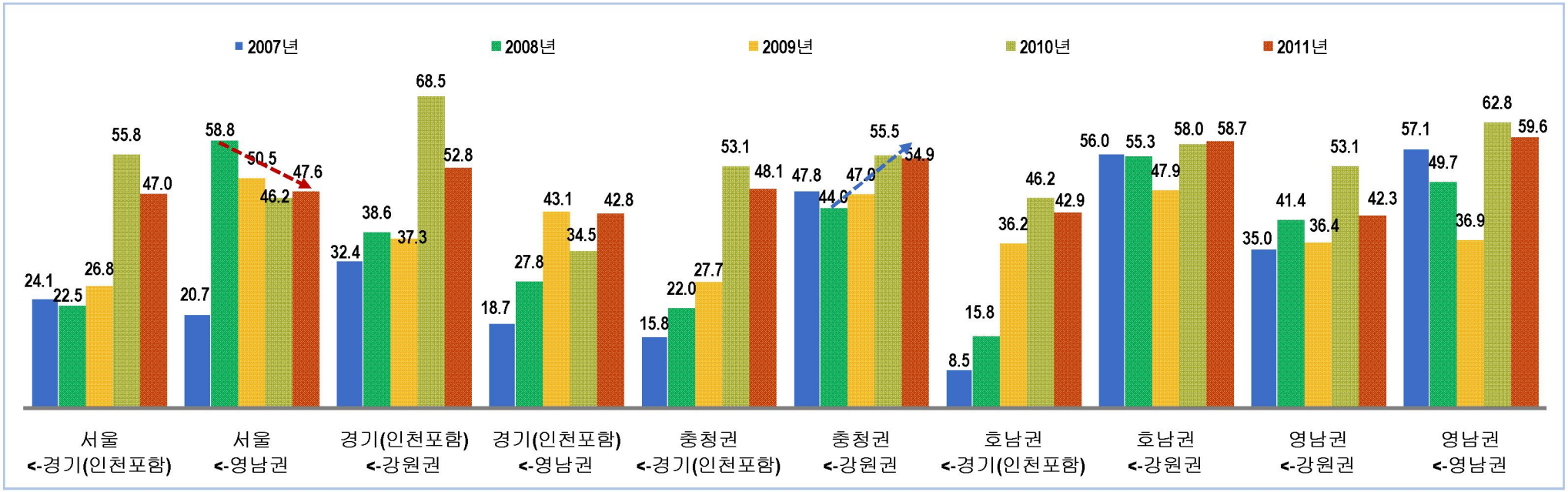
-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'자가용'으로 '대중교통'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
- 출발지역별로 살펴보면, 서울지역 및 영남권 거주자들은 2009년 이후부터 '자가용' 이용률이 소폭 증가하였음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8) 역귀성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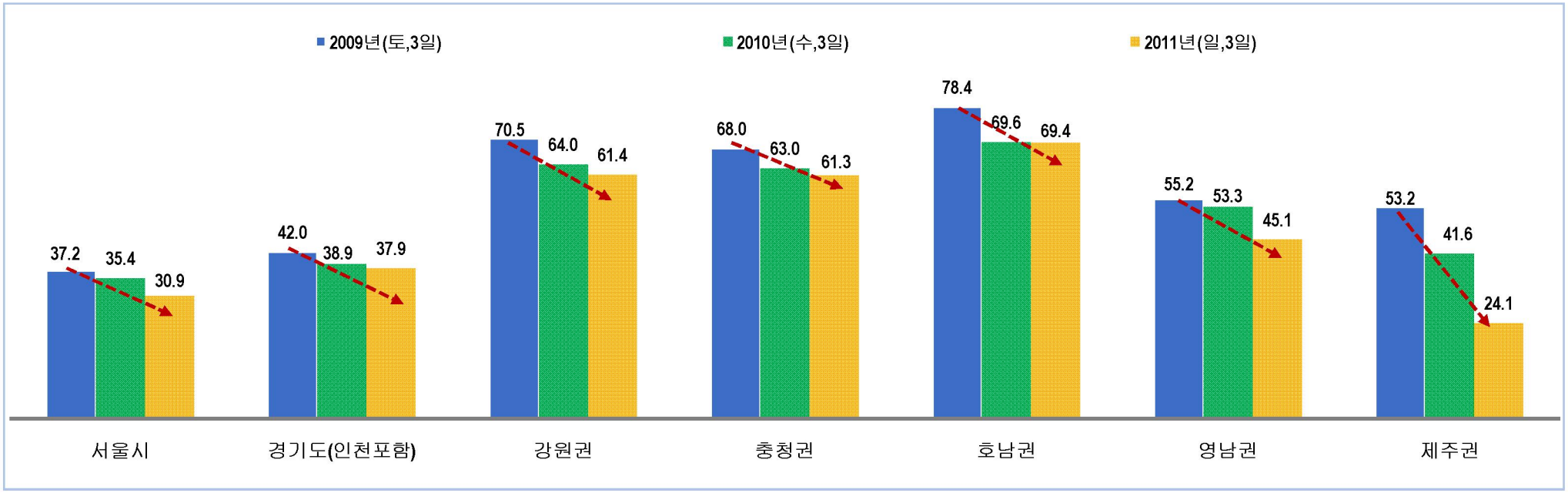
-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는 경우, 충청권에서 강원권으로의 역귀성률은 2008년부터 다소 증가하였음
- 반면, 서울에서 영남권으로의 역귀성률은 2008년 이후부터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9) 성묘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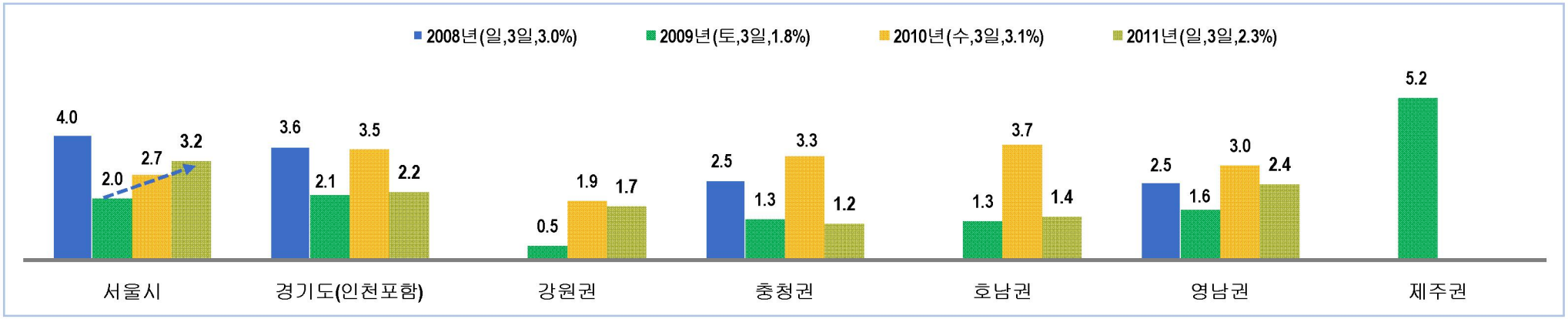
추석 연휴 기간에 성묘를 가는 비율은 '호남권'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, 응답자들의 성묘 비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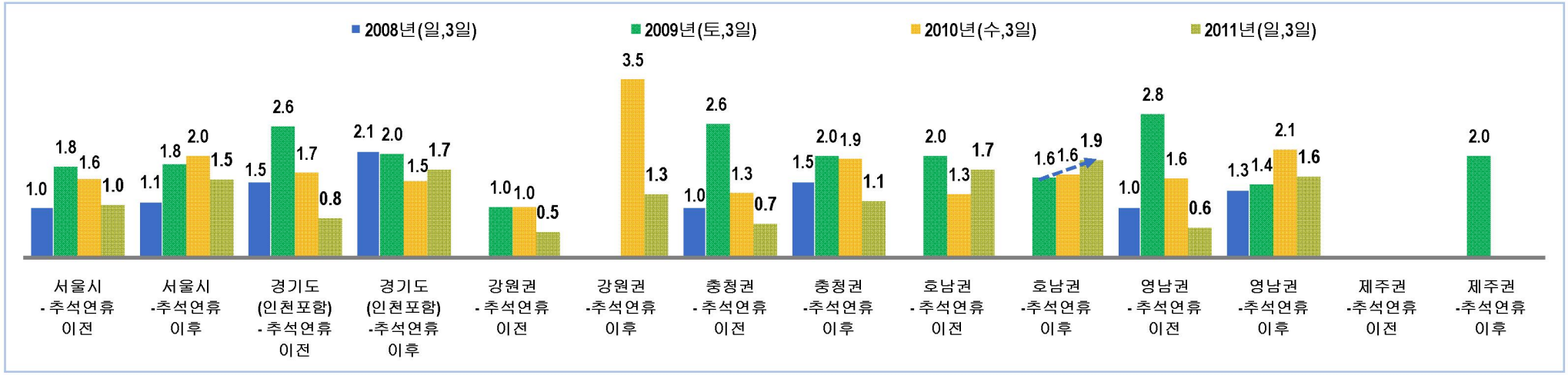

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임

10) 추가 휴가계획

- 응답자들은 대부분 추석의 귀성 및 귀경을 위해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휴가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다른 비역에 비해 2009년부터 추가 휴가를 계획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음
- 또한 추가 휴가계획은 주로 '추석 연휴 이후'인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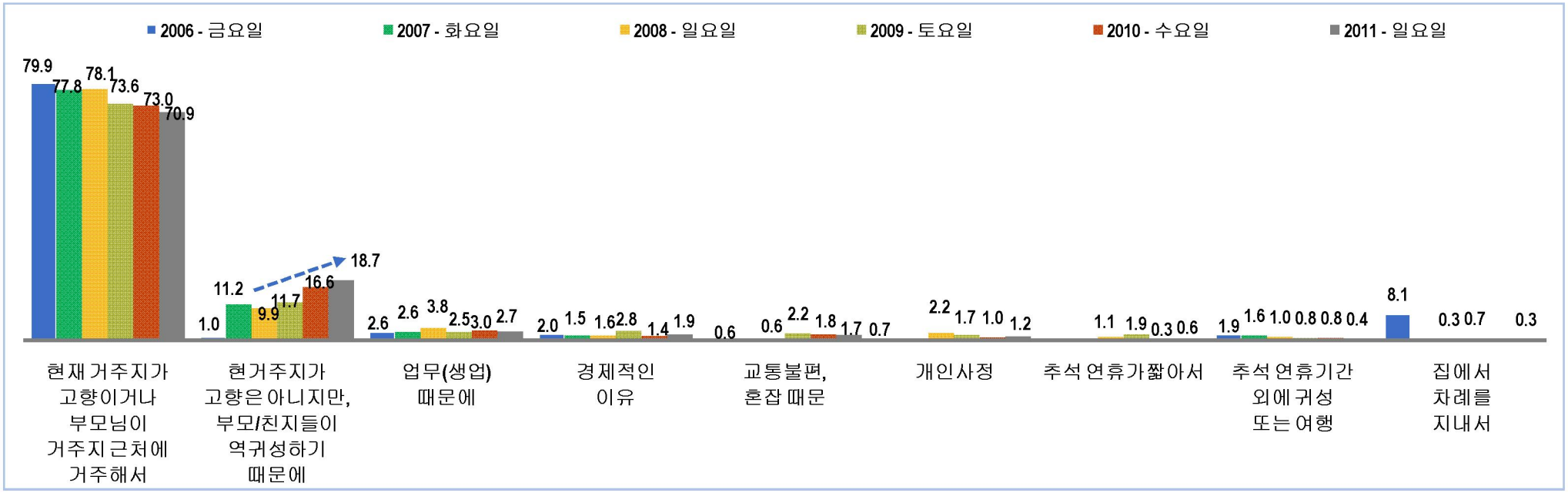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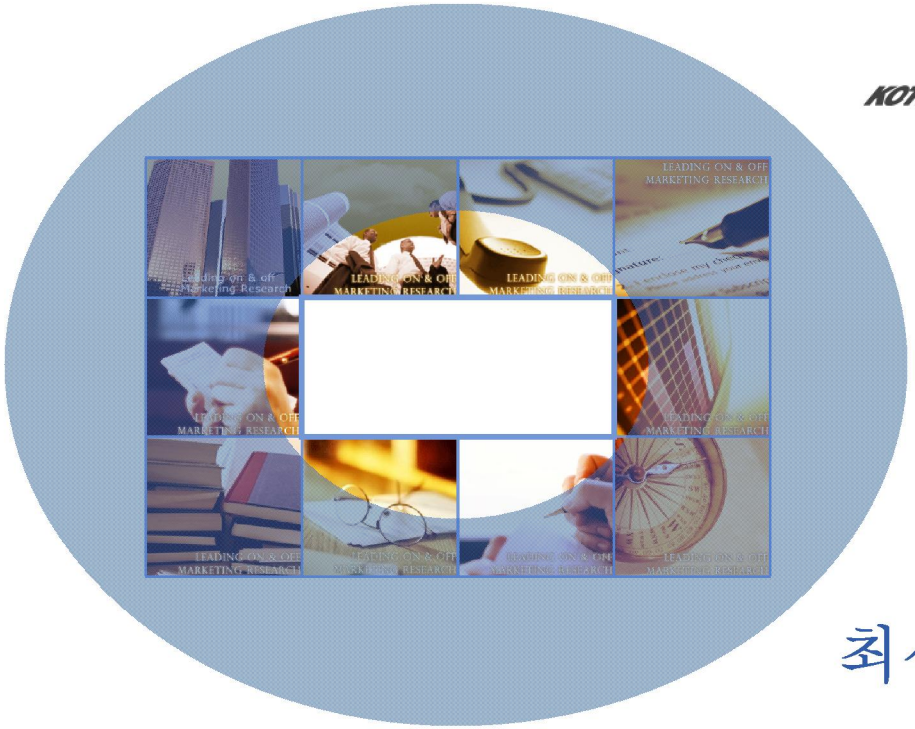
※ 미정은 제외한 응답이며, 2012년도 데이터 중 귀성 및 여행 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,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지역을 그래프로 표기함

11) 귀성 또는 여행하지 않는 이유

-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'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'이며, 다음으로 '현 거주지가 고향은 아니지만, 부모/친지들이 역귀성하기 때문'인 것으로 나타남
- 연도별로 살펴보면, '역귀성' 비율이 2008년 이후부터 소폭 증가하였음



※ 데이터 중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주요 값만 표기함



KOTI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당사의 모든 연구진은

보다 정확하고

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

최선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